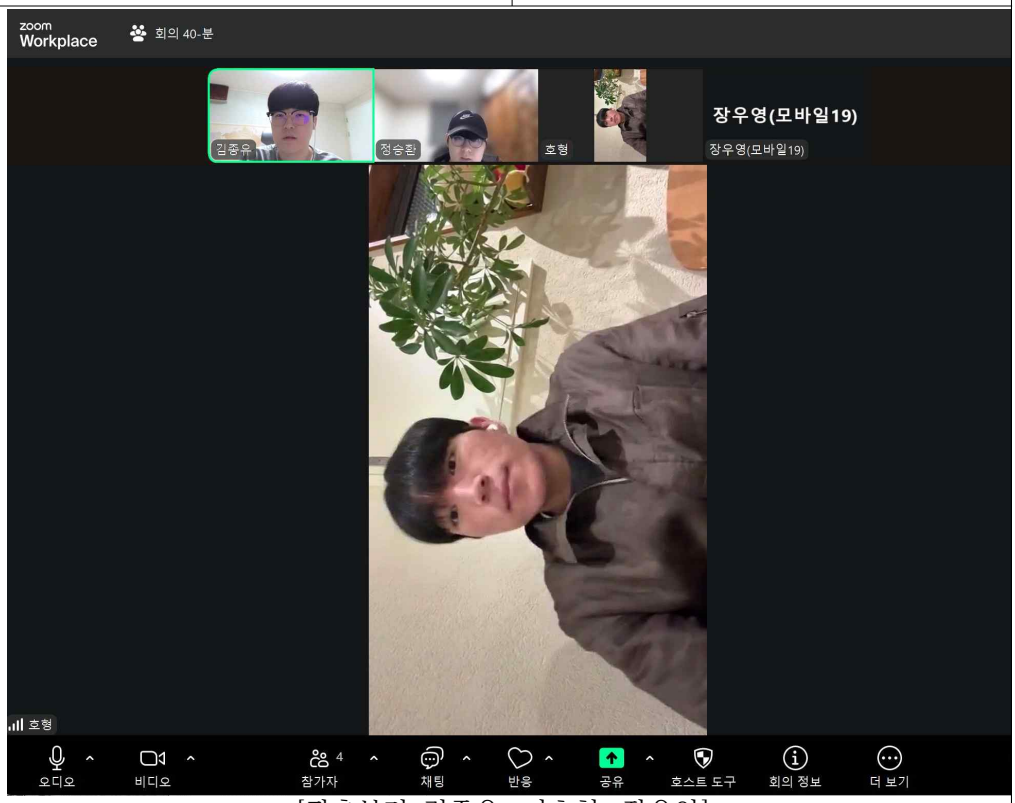
독서클럽 모임 1주차 보고서 - 컴공농장

<table>
<tr><td rowspan="7">1주차</td><td>일시</td><td colspan="2">2025월 11월 06일 18:00 ~ 18:33 ZOOM 미팅</td></tr>
<tr><td rowspan="5">참여 학생</td><td>클럽원 정보</td><td>참석 여부</td></tr>
<tr><td>김종유(2191288)</td><td>O</td></tr>
<tr><td>장우영(1971136)</td><td>O</td></tr>
<tr><td>이호형(2271200)</td><td>O</td></tr>
<tr><td>정승환(2571384)</td><td>O</td></tr>
<tr><td>진도</td><td>도서명: 동물농장</td><td>진도페이지: 1p.~ 63p.</td></tr>
<tr><td>토론 내용</td><td colspan="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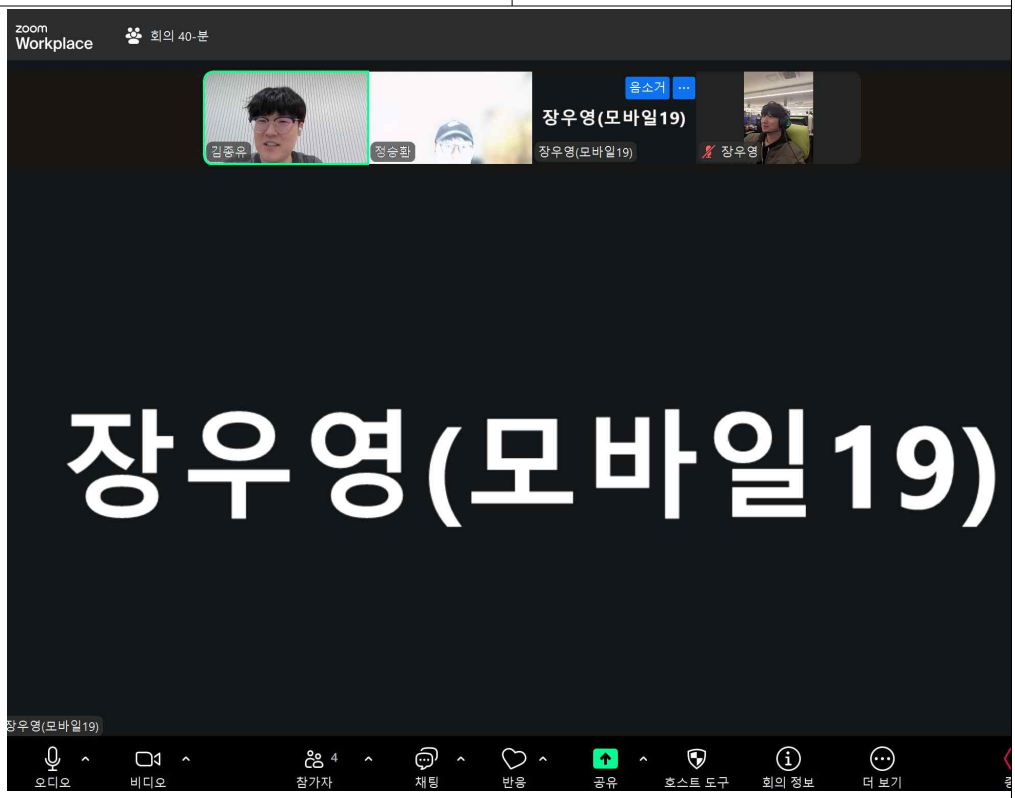
[좌측부터 김종유, 이호형, 장우영]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토론안건 : 각자가 생각하는 평등의 정의. / 7계명이 뜻하는 의미.

김종유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계명처럼, 법·규칙 차원의 명목상 평등이 출발점.
그러나 우유·사과 독점, 돼지 전용 침대·술, 배급 차등, 강압과 선전이 결합되며 실질적 불평등이 확대됨.
결국 권력이 집중되면 평등은 표어로만 남고 실천에서 부정됨.

정승환
책에서 말하는 평등이란 인간의 착취가 사라지고, 동물들끼리 같은 조건·같은 대우를 받는 상태. 그러나 동물들은 ‘평등’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지 못하여 원칙이 쉽게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초기 7계명의 취지대로 인간의 습관/특징을 모방하지 말았어야 한다.</td></tr>
</table>

		장우영 ‘평등’이라는 대의로 시작했지만 다수 동물에겐 체감되지 않았다. 7계명의 진짜 의미는 인간=악으로 단순 규정한 게 아니라 ‘인간적 행위(권력·착취의 방식)’를 금지한 것으로 본다. 더 확장했을 때 농장 주인을 기업가로 비유하여 7계명이 자본주의적 착취 비판의 상징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호형** 혁명은 경제적 불평등(노동 대가의 부재)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되었다. 모두가 먹고사는 기본이 보장되는 상태(분배의 평등)가 평등의 목표이자 정의이다.

독서클럽 모임 2주차 보고서 - 컴공농장

<table>
<tr><td rowspan="7">1주차</td><td>일시</td><td colspan="2">2025월 11월 13일 18:00 ~ 18:34 ZOOM 미팅</td></tr>
<tr><td rowspan="5">참여 학생</td><td>클럽원 정보</td><td>참석 여부</td></tr>
<tr><td>김종유(2191288)</td><td>O</td></tr>
<tr><td>장우영(1971136)</td><td>O</td></tr>
<tr><td>이호형(2271200)</td><td>x</td></tr>
<tr><td>정승환(2571384)</td><td>O</td></tr>
<tr><td>진도</td><td>도서명: 동물농장</td><td>진도페이지: 63p.~ 113p.</td></tr>
<tr><td>토론 내용</td><td colspan="2"> 

[좌측부터 김종유, 정승환, 장우영]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토론안건 : 풍차 프로젝트는 정책 논쟁이었나, 권력 다툼이었나?
풍차는 모두의 삶을 낫게 하는 계획이었나, 권력을 고정시키는 명분이었나

김종유
풍차 프로젝트는 겉으로는 정책을 둘러싼 토론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나폴레옹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명분이었다. 스노볼은 전기를 통해 노동을 줄이고 생활을 개선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지만, 나폴레옹은 논리로 반박하지 않고 개들을 동원해 스노볼을 강제로 몰아냈다.
이 순간 풍차 논쟁은 정책의 경쟁이 아니라 힘에 의한 권력 투쟁으로 전환된다. 이후 나폴레옹은 스퀼러를 통해 “풍차는 원래 자신의 구상”이라고 왜곡하며, 풍차의 상징성을 장악하고 정당성을 조작한다. 풍차가 무너졌을 때도 책임을 스노볼에게 돌려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충성심을 시험하는 도구로 삼는다.</td></tr>
</table>

		결과적으로 풍차는 동물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이 아닌, 적을 만들어 권력을 공고히 하는 정치적 상징물로 기능했다. **정승환** 스노볼에게 풍차는 전기를 만들어 노동을 줄이고 복지를 확대하려는 순수한 정책적 구상이었지만, 그 과정은 결국 나폴레옹의 권력 장악 사건으로 이어졌다. 또한 나폴레옹은 풍차를 정책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스노볼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자 명분으로 활용했다. 벤자민이 “풍차가 완성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듯, 설령 풍차가 완성되었더라도 혜택은 돼지들만 누리고 다른 동물들은 착취당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나폴레옹이 비공개 회의를 열어 풍차 재건을 선언하며 동시에 식량 배급을 줄인 장면은, 풍차가 사실상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장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스노볼을 ‘만능 희생양’으로 만들어 모든 문제를 그에게 돌림으로써, 거짓과 선전을 통해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했다고 평가한다. **장우영** 풍차 프로젝트는 처음엔 정책을 둘러싼 의견 차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폴레옹의 권력 확보 수단으로 변질된 사례이다. 스노볼은 동물들의 삶을 실제로 개선할 정책적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나폴레옹은 이를 철저히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했다. 설령 풍차가 완성되었더라도 그 이익은 대부분 돼지들이 독점했을 것이며, 다른 동물들은 여전히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풍차는 모두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공공 정책이 아니라, 지배 세력의 권력을 강화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풍차 논쟁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논리로 귀결되었다고 결론짓는다.

독서클럽 모임 3주차 보고서 - 컴공농장

<table>
<tr><td rowspan="7">1주차</td><td>일시</td><td colspan="2">2025월 11월 20일 20:10 ~ 20:40 ZOOM 미팅</td></tr>
<tr><td rowspan="5">참여 학생</td><td>클럽원 정보</td><td>참석 여부</td></tr>
<tr><td>김종유(2191288)</td><td>O</td></tr>
<tr><td>장우영(1971136)</td><td>O</td></tr>
<tr><td>이호형(2271200)</td><td>O</td></tr>
<tr><td>정승환(2571384)</td><td>O</td></tr>
<tr><td>참여 멘토</td><td>김성동 교수님</td><td>O</td></tr>
<tr><td>진도</td><td>도서명: 동물농장</td><td>진도페이지: 113p.~ 220p.</td></tr>
<tr><td>토론 내용</td><td colspan="2">

[좌측부터 김종유, 정성동 교수님, 정승환, 이호형, 장우영]

김종유 :
벤자민의 침묵은 체념과 자기보존이 결합된 결과라고 보았다. 그는 말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냉소와 스노볼의 사례에서 본 공포 때문에 행동을 피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은 부분적으로 비판 가능하지만, 억압적 환경에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책임 전가라고 생각했다.
동물들이 반복적으로 속은 이유는 정보의 독점과 문맹, 스퀼러의 선동 같은 구조적 요인 때문이었다. 또한 고된 노동 속에서 '풍차가 완성되면 좋아진다'는 희망에 의존하게 되었고, 집단 심리와 공포 정치로 인해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결국 그들의 속음은 무지가 아니라 통제된 구조 속에서 발생한 필연적 결과라고 보았다.</td></tr>
</table>

		장우영 : 벤자민의 침묵이 비판받을 여지가 일부 있지만, 과연 우리가 그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소방관처럼 '행동'이 직업적 사명에 포함된 분야와 달리, 지식인에게 동일한 수준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한 돼지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강압적으로 통치한 상황에서, 다른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 할당량 노동을 수행하느라 비판적 사고나 저항할 여력이 없었다고 보았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기 어려웠다며, 비판적 사고 상실의 원인도 결국 빡빡한 삶과 구조적 억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승환 : 벤자민은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냉소, 그리고 스노볼이 개들에게 쫓겨나는 장면에서 느낀 공포 때문에 침묵했다고 분석했다. 지식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윤리적으로는 비판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각자의 상황 때문에 침묵할 수도 있음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지식인의 의견은 일반 대중보다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복서처럼 무지한 순응을 하는 태도와는 구별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문맹, 정보 부족, 스퀼러의 선동, 거짓과 사실이 뒤섞인 정보 조작, 집단 심리, 생존을 위한 과로 등이 동물들이 비판적 사고를 잃게 된 주요 요인이라고 정리했다. 이호형 : 벤자민의 침묵은 무엇보다 자기보존 본능 때문이었다고 보았다. 냉소주의와 변화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체념, 그리고 돼지들의 숙청에 대한 두려움이 침묵을 선택하게 만든 핵심 이유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안건에서는 원래는 벤자민을 비판했지만, 앞선 의견을 듣고 단순한 비난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바꾸었다. 또한 동물들이 비판적 사고를 하지 못한 이유로 심각한 문맹과 무지, 스퀼러의 교묘한 선동, 반대 의견을 말하면 즉시 숙청되는 공포 정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정리했다. 김성동 교수님 : 그럼에도 역사 속에서는 누군가 목숨 걸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회가 변화할 수 있었다고 말씀해주셨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한 정보 속에서 사실을 식별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함이라고 강조해주셨다. 『동물농장』은 단순히 이야기의 사실 전달보다,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미리 생각해보게 하는 가상 경험의 장치라는 점을 짚어주셨다.

독서클럽 모임 4주차 보고서 - 컴공농장

<table>
<tr><td rowspan="8">1주차</td><td>일시</td><td colspan="2">2025월 11월 27일 19:20 ~ 19:55 ZOOM 미팅</td></tr>
<tr><td rowspan="5">참여 학생</td><td>클럽원 정보</td><td>참석 여부</td></tr>
<tr><td>김종유(2191288)</td><td>x</td></tr>
<tr><td>장우영(1971136)</td><td>O</td></tr>
<tr><td>이호형(2271200)</td><td>O</td></tr>
<tr><td>정승환(2571384)</td><td>O</td></tr>
<tr><td>참여 멘토</td><td>김성동 교수님</td><td>O</td></tr>
<tr><td>진도</td><td>도서명: 동물농장</td><td>진도페이지: ~ 220p.</td></tr>
<tr><td>토론 내용</td><td colspan="2">

장우영 : 이 소설은 동물들이 인간 주인을 몰아내고 유토피아를 꿈꿨지만, 결국 돼지들(나폴레옹과 그의 일당)이 새로운 독재자가 되는 과정을 신랄하게 풍자합니다. 저는 이 책을 단순한 혁명의 실패가 아닌, 부당한 체제 속에서 지식인이 겪는 비극적인 운명에 초점을 맞춰 읽었습니다. 이 책의 비극은 부당함을 아는 지식인들이 왜 침묵하거나 체제에 협조하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동물농장』은 독재 체제하에서 지식인의 운명이 **'거짓을 말하는 선동가(스퀼러)'**가 되거나, 혹은 **'체념하고 침묵하는 방관자(벤자민)'**가 되는 두 가지 비극적인 선택지로 수렴됨을 보여줍니다.
이 소설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부당함을 알리는 데 필요한 것은 지식만이 아니라 권력에 맞서는 엄청난 용기와 행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동물농장』은 지식의 힘 이전에, 우리 모두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를 끊임없이 촉구하는 불멸의 경고장입니다.

정승환 : 농장 동물들이 인간을 몰아내고 평등한 사회를 꿈꾸지만, 곧 돼지들이</td></tr>
</table>

		권력을 장악하며 새로운 독재 체제를 구축합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는 구호처럼, 혁명의 이상은 완전히 변질됩니다. 똑똑하고 잔인한 돼지 '나폴레옹'은 공포와 선전술로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며 전체주의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나는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 '복서'의 비극적인 희생은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순진한 대중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 작품은 권력이 어떻게 부패하는지, 그리고 대중의 무관심이 어떻게 독재를 키우는지를 예리하게 통찰합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자유와 비판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오늘날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고전입니다. 책을 덮은 후, 우리는 우리 사회의 '돼지'와 '복서'는 누구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호형 : 『동물농장』은 부패한 권력을 무비판적으로 순응한 이후로 자유를 점점 약탈당하는 인간들을 동물로 비유한 이야기이다. 타락한 권력에 굴복하는 인간들의 말로, 변질된 권력을 보고도 침묵하는 인간들의 말로, 부패한 권력을 인지조차 못하는 인간들의 말로를 보여준다. 가축들은 자신들을 착취하던 인간을 농장에서 몰아낸 뒤, 모든 동물이 평등한 '동물농장'을 세웠다. 그들은 몇 가지 규칙에 따라 서로 협력하며 행복하게 생활했다. 하지만 수퇘지 '나폴레옹'이 권력을 차지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는 독재 권력을 행사하고 언변이 뛰어난 수퇘지 '스퀼러'를 앞세워 가축들을 선동했다 평등을 꿈꾸던 가축들은 주인만 인간에서 돼지로 바뀌었을 뿐, 이전과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나폴레옹'이 펼친 정치가 21세기의 정치와 상당히 닮아 있다는 점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실은 거짓이라 폄하하고, 유리한 거짓은 진실로 포장했다. 공공의 적을 만든 후, 보호와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가축들의 자유를 통제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현대 정치와 비교하며 읽으니 너무 재미있었다. 현대에는 가짜뉴스와 편향된 정보, 날조된 기사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옳고 그름을 판단한 후,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막 성인이 된 친구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김성동 교수님 : 독서클럽 멤버들 역시 엄연한 지식인이다. 독재와 권력투쟁은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던 일이고 그 과정속에서 누가 옳았던 것인지는 계속 바뀌었다. 사실 속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도 자신이 믿는 신념 아래에 옳다고 믿는 것을 행한 것일 수 있다. 권력이라는 것이 새로운 타계 변질되어서 독재로 발생 선한의도였을 수 있다. 무관심이 가장 문제다. 선거에 시의원 구의원 관심을 갖고 해야한다. 책을 읽고 이러한 교훈을 배우고 시선을 넓혀야한다.